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재영 붓다빠리사 학교 지도법사



무원 김재영 법사는…1938년 마산에서 출생.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김동화 박사에게 배우고(문학석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이후 지금까지 동방불교대학 교수로 '현대포교론'을 강의하고 있다. 1970년 동덕불교학생회를 창립한 이래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청소년 청년 대학생 중심의 '청보리운동'을 전개해왔다. 〈보리지〉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출간했고 '연꽃들의 행진' '붓다의 메아리' '판소리 불타전' 등을 통해 1970년~80년대 한국불교 중흥운동을 견인해왔다. 현재 붓다스터디-빠리사 학교의 지도법사로 있다.

"죽음 두려워 않는 '보살'로 돌아와 '전법'하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다른 길로 한번 샐 법도 하건만. 그는 한눈팔지 않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꼬박 60년을 바쳤다. 1970~80년대, 한국불교 전법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김재영(86) 법사다. 그는 동덕여고 전교생 절반이 불교 동아리에 가입한 '동덕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부터 전법사 운동 '붓다빠리사 학교'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런 그가 최근 불교 인생 60년을 담아낸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를 펴냈다. 그의 일생에 거친 전법 이야기를 듣기 위해 1월 13일, 조계사 카페 '베이커리 조'에서 그를 만났다. 깔끔한 차림의 노신사는 환한 미소와 함께 60년 소회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60년 동안 전법 말고 다른 길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이죠. 하지만 그게 제 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칭찬해 주고 싶네요. 장하다 김 법사!"

이처럼 김재영 법사의 전법 열망은 보통 사람 이상이었다. 도대체 어떤 인연이 그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전법으로 이끌었을까. 부처님도, 스님도, 경전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건 어느 날 엄습한 '죽음'의 공포였다.

'죽음'에서 시작된 佛緣

고1 겨울방학이었다. 김 법사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등 막연히 찾아온 죽음의 공포에 밤낮을 설쳤다. 그를 덮친 죽음의 공포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점차 일상생활도 피폐해져갔다. 몸에 '검은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은 망상에 시달렸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 곧장 냇가로 달려가 돌로 연신 몸을 문질렀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의 공포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갔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967년 가을, 김재영 법사는 동덕여고 역사 교사가 됐지만, 여전히 죽음의 공포로 몸서리쳤다. 불안함에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학교 도서실에 다다랐다. 창문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에서 한 권을 들어올렸다. 그저 손이 갔을 뿐, 의도하지 않았다. 집어 든 책은 〈법구경〉이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나니 마음으로 어둔 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구경〉 한 구절을 읽으니 죽음의 공포가 말끔히 씻겨져 나간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자 불교가 궁금해졌다. 이후 김 법사는 불교에 미친 사람처럼 공부했다. 하루면 다 읽을 〈법구경〉을 3개월에 걸쳐 읽었다. 하나라도 놓칠새라 구절 구절, 단어 단어를 꼭꼭 씹었다. 이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유와 해탈의 길이라고 확신했다. 김재영 법사의 불연(佛緣)은 그렇게 시작됐다.

전법의 기적을 일으키다

동덕여고 선생님으로 '역사'를 가르치던 어느날이었다. 학생들은 역사 교사인 김 법사에게 원효 대사 등 불교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김 법사는 그런 학생들이 기특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불교를 설명했다. 김 법사의 친절한 설명은 1970년 6월, 그의 삶을, 아니 한국불교 역사를 바꿀 사건이 불러왔다.

"선생님! 우리도 불교반 만들고 싶어요. 개신교반, 가톨릭반은 있는데 불교반만 없단 말이예요. 불교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고3 학생들이 김 법사를 찾아와 한 말이다. 갑작스러운 제의에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우선 회원 모집을 위해 불교를 알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 법사는 부처님의 생애가 담긴 한국불교 최초의 청소년 불교 학습지 〈보리지〉를 직접 제작하고 배포했다.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작업이라 생각하니 고되지 않았다. 여법한 창립법회를 위해 법사스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아는 스님이 별로 없었던 김 법사는

60년 '전법 · 포교 한 길'
동덕불교학생회 법사로
1970~80년대 포교 개척
'한국불교 중흥' 이끌어

회고록 속 나오는 '不死'
생과 생을 반복하면서
이웃들을 도우러 오는
'보살의 삶'을 의미해

일단 서울 조계사로 무작정 달려갔다. 당시 조계사에는 무진장(혜명) 스님이 법문 중이었다. 초청법사가 되어달라는 김 법사의 간절한 부탁에 무진장 스님도 흔쾌히 허락했다.

김 법사의 전법 열정에 학생들도 힘을 보탰다. 학생들은 직접 '전법단'을 꾸렸다. 반마다 생겨난 전법단은 〈보리지〉를 신입생 손에 쥐어주며 가입을 권유했다.

김 법사와 학생들의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다. 1971년 동덕불교학생회 창립법회 당일,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하나 둘 교내 시청각실로 모여들었다. 점차 입소문을 타자,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창립 10여 년 만인 1978년 동덕여고 전교생 1600명 중 1000여 명이 가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불교사에 유래없는 사건이었다.

동덕불교학생회는 한국불교 중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고등학교부터 불교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학생들은 각 대학에 가서도 불교 동아리를 세워 자발적 활동을 지속했다. 청년 불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찰도 함께 발맞췄다. 서울 대원정사, 청룡사 등 사찰들이 청소년·청년 법회를 개설하고 청년불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김 법사는 "그때 청소년·청년 법회가 없는 사찰이 없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동덕여고 동창회였다"며 "학생들이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는 기적이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 자발적 동기, 눈물과 기도가 맺어낸 '전법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열정은 '문화'로도 뻗었다. 부처님을 쉽고 재밌게 전할 방법으로 제격이었다. 곧바로 김 법사는 학생들을 모아 '연꽃들의 행진' 청소년 축제를 기획했다. 백팔합창단, 연극, 만화 전시까지 풍성한 문화 한마당을 열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문화포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1987년에는 불광법회의 요청으로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한 판소리, 〈불타전〉을 만들기도 했다. 김 법사가 직접 사설(辭說)을 쓰고 안숙선 명창이 작창했다. 김 법사는 '수행'과 '신격화'에 치중한 나머지, 퇴색된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부처님 생애를 통해 다시금 전하고 싶었다.

"천민부터 왕족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 시대에 재현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어울리며 '부처님처럼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부처님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김 법사의 전법 여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퇴직 후 2014년 '붓다빠리사 학교'를 시작한 그는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붓다 석가모니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내건 붓다빠리사 학교의 강의는 학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현재까지 84여 명의 전법사를 양성·배출했다.

배출된 빠리사학교 법사들은 서울, 수원, 김해, 포천, 춘천, 부산, 김제 등 전국에서 법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 확산에 진력하고 있다. 군부대, 교도소, 탈북민 모임 등 포교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 봉사에 참여하는 등 보살행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부처님 삶에 있는 '不死'

김재영 법사의 60년 회고록 제목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다. 김 법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불사' 따위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살'로 돌아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험한 벌판길 함께 가는 길동무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느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네"라는 한 불경 구절을 소개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게 몇 번, 몇 생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불사(不死)라는 의미다. 김재영 법사 역시 언제라도 이 세상으로 돌아와 '보살'로 살아갈 수 있길 서원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보살행입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허리 아픈 사람에게 파스 한 장 선물하세요. 불사(不死)도 전법도 그 속에,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동덕불교학생회 창립법회.



녹야원 초전법륜탑에서 정진 중인 김재영 법사와 불자들.



동덕불교학생회가 주축이 된 청소년 축제 '연꽃들의 행진'.



김재영 법사가 이끌고 있는 '붓다스터디-빠리사 학교'.